주요용어 : 중년남성, 배우자 사별

중년남성의 배우자 사별경험

박 경 복*·김 분 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별은 인생에서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가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초래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모든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매우 스트레스가 큰 생활사건이고, 당면한 위기이다.

특히 노화로 인한 사별과 달리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을 가져와 가족체계 내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와 위기를 유발하게 되는데, 죽음은 예견된 것이든 아니든 항상 가족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남성의 경우 중년기는 삶의 통합을 수행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절정기임과 동시에 상당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Gillis & Perry, 1991; Lee, 1996).

인간은 여러 면에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으나 죽음을 통한 상실, 즉 사별은 특별한 것으로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준다(노유자 등, 1994).

Lindemann(1944)은 예측된 정상적 슬픔의 기간을 6-8주에서 2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사별 가족에 대한 간호 중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죽음이란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므로 간호사는 병원이나 지역 사회 등의 임상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별 가족을 접하게 되며, 더욱이 근래 호스피스 간호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서 임종 간호에 초점을 둔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간호는 활발한 데 비하여 사별 가족을 위한 간호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실무접근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까지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임종자를 중심으로 한 임종 경험(김분한, 탁영란과 전미영, 1998; 이옥자, 1995; 최공옥, 1991) 또는 신학적 측면에서의 사별가족 목회상담의 필요성을 논한 연구(배동석, 1991; 이재만, 1990) 등이 있으며, 유가족의 슬픔에 관한 연구로는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이정섭, 1992)가 있다. 또한 중년여성의 배우자 사별에 대한 선행연구(김선영, 1991; 최희정, 1996; 강인, 1998; 양복순, 남인숙, 2001; 양복순, 2002; Lopata, 1993)는 여러 편 있으나, 최근까지 중년남성의 배우자 사별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현재 중년남성이 배우자를 잃고 사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지, 또한 사별의 적응과정이 중년여성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별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위기상황 속에서의 적응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년남성의 사별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별경험을 알아보고 위기의 적응과정에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한양대학교 간호발전연구소 연구원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연구의 목적

암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중년남성이 심리적 신체적 고통 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겨내는지 알아보고 경험의 특성에 따른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연구문제

암환자 배우자를 사별한 중년남성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중년남성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의미와 구조를 기술함으로써 경험의 특성에 따른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암으로 아내와 사별한지 2개월 이상 경과되고 재혼하지 않은 35~60세의 중년남성 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를 구한 후 최초 면담을 시작하였다.

3. 연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자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자아인식이 중요하다. 인간관계 훈련을 위해 2년간의 카운슬러 전문과정을 수료하였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동안 현상학연구를 수강하였다. 질적 연구와 관련된 워크숍에 수차례 참석하였으며 Giorgi가 직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강의하는 2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3년째 호스피스 간호사로 환자방문, 봉사자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S 호스피스센터 사별가족 지지모임(매월)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및 봉사자(co-leader)로 일하고 있다.

4. 자료수집절차

자료 수집은 암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 환자의 중년기 남성으로 삶의 경험에 대한 솔직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면담자가 진술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여 기술하고, 면담은 반복 내용이 추출될 때까지를 기점으로 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을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기술(description)하고 표정이나 상황 등의 관찰된 내용은 ( )안에 기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로 면담 종료는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1회 면담 시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글로 옮겨 정리하는 데 1회 면담분이 3~5시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중년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사별한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통하여 생생한 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Giorgi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기술에서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를 규명하여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어 중심의미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심의미들을 종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상황 구조적 기술을 만들고, 각 대상자의 상황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배우자로서의 중년남성의 경험 유형을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접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참여자 분석

1) 참여자 1의 분석

참여자의 나이는 56세로 부인(폐암, 49세)과 사별한지 13개월 된 중년남성이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미혼인 딸(29세, 대학원생)과 결혼한 아들(26세, 학생), 그리고 며느리(24세, 유치원교사)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비사교적이나 가정적이며 말수는 많은 편이다. 부인과 펜팔로 만나 어렵게 살아오면서 자수성가하였고 근면, 검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부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특히 대화상대가 없어 힘들어한다. 현재 조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1) 중심의미 분석

"처음에는 오히려 나도 잊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처음엔 나도 잊으려고 모진 마음먹고 그래서 잊혀지기도 했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전 오히려 더 커져요. 애들 앞에서는 내색은 안하지만 이제 그런데도 그리운 마음은 더 커져요. 풀뿌리를 봐도 풀은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나고 하는데 언궁 한번만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부러운 게 없죠. 근데 혼자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회사를 가도 집에 와도 별 기쁜 게 없어요.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뿐이지 큰 기대가 없어요. 항상 집에 빨리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오면 집에 얘기 할 사람도 없고."

**** 중심의미**

잊으려 할수록 더욱더 생각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리움에 사무친다. 풀뿌리를 보면서 풀은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한번 간 부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모든 일에 기쁨이 없음을 고백한다. 곁에 자식들이 함께 함에도 딱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 부인의 빈자리를 절감하게 된다.

(2) 상황적 구조적 기술

참여자는 부인과의(폐암 진단 받은 지 1년 만에 사망) 사별 후 신체적인 변화로 급격히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불면증을 경험한다. 심리적 불안정으로 부인을 회상하며 절실한 그리움에 몸부림치고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나는 풀뿌리를 보면서 죽은 부인이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기도 한다. 부인 사진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곤 한다. 바깥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는 집안에서 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적이었으므로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더 크게 느껴진다. 부인의 마지막 고통스러웠던 모습을 상기하며 최선을 다해 보려는 가족들의 뜻을 따라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워했으므로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스러움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의욕을 잃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도 없어졌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세월을 보낼 뿐 멍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는 했으나 차를 타고 달릴 때도 운전석 옆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나고 산책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둘 씩 다니는 모습만 눈에 띄었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화가 남을 경험한다. 그럴 때면 먼저 간 부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만 하다. 대화상대가 절실히 그리워 작은 일도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비애를 느끼곤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부인 생각도 문득문득 잊혀져 가고 눈물도 줄어들었으며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안부를 묻던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재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소개받기도 했는데 재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을 알게 되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러나 자녀들을 대하면서 아내의 빈자리를 다시금 절감했고 부인이 있었더라면 함께 작은 일 까지도 함께 상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혼자임을 절감한다.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원래 가정적이었던 참여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와 싹싹한 성격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2) 참여자 2의 분석

참여자의 나이는 43세이고 부인(폐암, 41세)과 사별한지 3년 되었으며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들(16세, 고1)과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정적이며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아내와 결혼해 부인과의 정이 각별하다. 근면·성실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혼을 미루고 있으나 매일 매일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며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비만증인 아들의 건강관리와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직업상 정기적으로 쉬지 못해 자기의 개인적 여가시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개인사업체를 차렸는데 화재로 인해 사업체를 잃고 외국인 근로자 1명을 데리고 친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1) 중심의미 분석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감정적으로는 미워지지만 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지요. 살아 있는 사람 위주로 위로을 한다고 하 는 것이 더 상처가 되죠. 친구들 만나면(부부동반) '장가가야지.....'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상해요. 사람이나 소개 시켜주고 그런 말 하나고 대꾸해버리죠."

"외국 같으면 결손가정에 대한 배려을 해주는데, 우리는 결손으로는 배려한다 고 하면서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을 한 것이 오히려 애한테 피해을 준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 담임선생님께 애 얘기애기을 하면서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남을 위로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의 말을 하지요."

**** 중심의미**

가까운 친구들을 부부동반으로 만날 때 '장가가야지.....'하는 말이 상처가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무심코 흘리는 말에 마음이 상한다.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께 가정 사정을 얘기했는데 도리어 결손가정의 문제아로 취급해 아들에게 타격이 되었다.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음을 알 수 있다.

(2) 상황적 구조적 기술

참여자는 갑작스럽게 부인(폐암 진단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사망)을 잃고 오랫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며 세 수하고 머리 깎기 조차 거부하고 교회 못나갈 이유를 찾아내 피하고 스스로 외부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당시 中1)을 보살펴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시는 동안 잠시 생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가족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 전혀 의심 안하고 폐 검사를 맨 마지막에 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자책감과 찜질방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못 가준 것, 늦게 공부해 대학에 입학한 아내가 MT 간다고 즐거워하던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 등에 대한 후회스러움으로 그 슬픔이 더했다.

부인 죽은 지 4개월 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해 일에 몰두했지만 고등학교 때 부인을 만나 7년 연애하고 15년의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워낙 깔끔하고 생활력 강한 부인에게 의존적이었던 터라 각별했던 정을 잊을 수 없었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했던 추억과 처음엔 솜사탕 같은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화된 슬픔으로 가슴을 쳐 옴을 경험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음을 절감하곤 한다.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역할수행의 변화로 인해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가 힘겹게 느껴진다. 아직 어린 나이로 모든 것에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유별나게 육식을 좋아해 비만인 상태여서 식성을 바꾸기 어렵고 잘 돌봐주지 못한다는 안쓰러움으로 과잉보호하게 된다. 새 학기가 되면서 관심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임선생님께 가정 사정을 알렸는데 도리어 결손가정의 문제아로 오인해 심한 상처를 받았다.

가까운 친구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금 일찍 죽은 것을 뭔가 잘못 있고 죄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다행히 사별한 지 4개월 만에 사별가족 지지모임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감정을 풀고 위로 받고 지지 받는 가운데 마음이 가라앉았다.

사별 후 한 달간은 성적인 갈등으로 힘들었으나 순간적인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더 허전해질 거라는 -마음이 들어 자제하였다.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도 부담이 커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고1이 된 아들이 졸업하기까지는 재혼을 보류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그동안 소원했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회복하기 원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뭔가 활기찬 생활을 위해...

3) 참여자 3의 분석

참여자의 나이는 50세로 부인(간암, 48세)과 사별한지 7개월 된 중년남성이다. 아들(26세, 군제대후 휴학 중)과 딸(24세, 전문대졸)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인정받은 며느리였던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에 부인에게 의존적이었던 참여자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나 전자 대리점 하던 것을 그만두고 부인을 잊으려 일(컴퓨터 설비 사업체)을 맡아 하고 있다.

(1) 중심의미 분석

"빈자리가 너무 커요. 같이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부부는 '정' 말고 뭔가가 있어요. 표현이 잘 안되는데... 아무튼 큰 거예요. 집사람 있을 땐 밖에서 뭐가 잘못되어도 집에 와서 '이러 이렇게 됐어. 할 수 없지 뭐' 하면 '그래요?' 하고 나서 싹 잊고 말았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어요. 말 들어 줄 사람도 없지만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생각나요. 어디 어디 안 좋다고 그러면 말이라도 '이건 게 좋다고 하던데' 하면서 애들처럼 다 받아 주고 그랬는데... 그게 힘이 되서 버텼나봐. 내가 너무 의지했나..."

** 중심의미

아내의 빈자리를 절감하게 된다. 아내가 있다면 몸이 안 좋을 때 위로받고 어려울 때 격려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일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 기억하고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아내에게 너무 의지했음을 느끼며 그리워한다.

(2) 상황적 구조적 기술

부인이 간암 진단 받은 지 두 어 달 만에 갑작스럽게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리자 몹시 당황하였고 그 후유증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다. 부인 생각이 떠나지 않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나 수면제는 안 먹고 견딘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TV를 켜놓은 채 잠든다. 부인 병간호할 때 체중이 5kg 줄었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집에서 쉬는 날은 운동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부인 사별한지 2개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컴퓨터 설비), 허리·옆구리·골반 쪽으로 돌아가면서 아파 동료들은 갑자기 일해서 그럴꺼라고 하지만 몸이 아픈데도 부인이 입원했을 때가 생각나 진찰 받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건강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생각나고, 어머니와 통화하다가도 생각나고... 친구들이 잊으라고 할 때도 속상하고.... 그럴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공허한 마음에 그리움만 절실해져 술 한 잔 한 날은 감정이 복받쳐 펑펑 운다.

집에서는 멍하니 TV를 볼 때가 많고 코미디프로는 보지 않으며 암울한 드라마가 나오면 꺼버리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하

던 때를 생각하면 오싹해지고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너무 짧은 기간에 손써 볼 겨를도 없이 큰일을 치르게 되어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이라는 말을 별 생각 없이 하거나 농담 삼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냥 남의 일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막상 내일로 닥치고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고 만족하게 생각하지만 가끔 속 뒤집는 소리를 해서 속상해 한다. 이제 그만 잊으라는 둥, 새 장가 가라는 둥... 좋은 봄날이 오니까 더욱 생각이 난다고 울먹인다.

혼자 계신 어머니(아직은 거동하실 수 있어 혼자 계시기를 원함)를 모시는 것과 아이들 자립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인데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의무감에 쫓겨 불안정한 상태로 부인이 살아 있을 때의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없어져 자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애써보지만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운동하고 일에 파묻혀 지내는 등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참여자 4의 분석

참여자의 나이는 56세로 부인(유방암, 49세)과 사별한지 3년 된 중년남성이다. 딸(27세, 직장인), 아들(25세, 대학생)과 함께 주택에서 살고 있다.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 한지 8개월만에 재발, 간전이 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지냈는데 통증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입원했다가 재발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맞았다.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했던 부인의 모습이 떠올라 6개월간 안정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먹기까지 했으나 부인이 생전에 간절히 원했던 신앙생활(기독교)을 열심히 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외로움으로 재혼에 대한 생각을 굳히고 있다.

(1) 중심의미 분석

"교회 나간 지 3-4년 됐는데 작년 가을에 세례 받았어요. 아직 신앙이 없어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려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기도하면 맘이 편해져요.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애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먼저 스카웃해 가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도 천국은 좋은 곳 이지요. 매일 웃기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틈만 나면 성경보고 또 성경 쓰기로 했어요."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되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떨쳐이 없었다면 술로 타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딸애는 교회에서 살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주일에만 가지요.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성적 갈등이 왜 없겠어요? 기도로 도움 많이 받았지요."

** 중심의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경보고, 성경쓰기도 하면서 신앙에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적 갈등의 문제도 기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2) 상황적 구조적 기술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 한지 8개월 만에 재발, 간전이 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지냈는데 통증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입원했다가 재발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맞는다. 헌신적이었던 부인의 죽음 앞에서 참여자는 장례를 치를 동안 링거주사를 맞을 정도로 기진했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했던 부인의 모습이 떠올라 6개월 간 안정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했다. 힘든 가운데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고 집에 와서 부인 생각에 펑펑 울다가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공허감을 맛본다.

부인 생각에 마음을 잡기 어려워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아내 얘기를 하며 슬픔을 달래보지만 술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산에 올라가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생전에 부인이 함께 교회가자고 할 때 함께 가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마지막 갈 때 진통제가 잘 듣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주위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안부를 묻는 말에 서운함을 느끼며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꿈에라도 보기를 원하지만 막상 꿈속에서 본 후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음을 경험한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아내가 돌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꼭 어디 갔다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였다.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해야하고 안하던 집안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부인이 생전에 간절히 원했던 신앙생활(기독교)을 열심히 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외로움으로 재혼에 대한 생각을 굳히고 있다.

3. 일반적 구조적 기술 및 논의

본 연구는 암으로 아내와 사별한 중년남성 4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 4인 중 참여자 1은 부인이 폐암으로 9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별한 지 13개월 되었으며, 참여자 2는 부인이 폐암 진단 받고 투병생활 2개월 만에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되었고, 참여자 3은 간암 진단 받은 후 2개월 만에 아내와 사별한 지 7개월 되었으며, 참여자 4는 부인이 유방암으로 8개월 간 치료받다가 재발하여 3개월 만에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되었다.

사별과정의 범주를 보면 '신체적 증상', '무기력한 삶', '회상

의 삶', '부정적 감정(정서변화)', '사회적 지지와 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증상'의 범주에서는 잠 못 이룸은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식욕부진은 참여자 1·2·4에서 나타났으며, 병이 남은 참여자 1·3·4에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1·4에서는 피곤함이, 참여자 3에서는 체중의 줄어듬이 나타났다.

'무기력한 삶'의 범주에서는 공허감(아내의 빈자리)·대인관계 기피가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의욕이 없어짐이 참여자 1·2·3에서 나타났으며 멍함·방황함은 참여자 1·4에서 나타났다. 참여자 1에서는 기쁨이 사라짐, 낙

〈표 1〉 사별과정의 범주

범 주	속 성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신체적 증 상	• 잠 못 이룸(1.2.3.4) • 식욕부진(1.2.4) • 병이남(1.3.4), • 피곤함(1.4) • 체중이 줄어 듬(3)	• 식욕부진 • 피곤함 • 잠 못 이룸 • 병이 남	• 식욕부진 • 잠 못 이룸	• 병이 남, • 잠 못 이룸 • 체중이 줄어 듬	• 병이 남 • 잠 못 이룸 • 피곤함 • 식욕부진
무 기 력 한 삶	• 공허감(아내의 빈자리) (1.2.3.4) • 대인관계 기피 (1.2.3.4) • 의욕 없어짐(1.2.3) • 멍함(1.4) • 방황함(1.4) • 불안정 · 낙이 없음(1) • 기쁨이 사라짐(1) • 초라한 생각이 듬(1) • 무미건조한 생활(1) • 외모에 무관심(2)	• 의욕이 없어짐 • 공허감(아내의 빈자리) • 멍함 • 기쁨이 사라짐 • 낙이 없음 • 불안정 • 대인관계 기피 초라한 생각이듬 • 무미건조한 생활 • 방황함 (허송세월 보냄)	• 외모에 무관심 • 공허감(아내의 빈자리) • 대인관계 기피 • 의욕 없어짐	• 공허감(아내의 빈자리) • 의욕이 없어짐 • 대인관계 기피	• 공허감(아내의 빈자리) • 대인관계 기피 • 방황함 • 멍함
회 상 의 삶	• 그리움(1.2.3.4) • 잊지 못함(1.2.3.4) • 슬픔(1.2.3.4) • 혼자 중얼거림(1.3) • 부인을 회상함(1.4) • 안타까움(2.4) • 쓸쓸함(3) • 아름다운추억(1) • 대화상대 원함(1)	• 부인을 회상함 • 그리움 • 잊지 못함 • 슬픔 • 아름다운 추억 • 혼자 중얼거림 • 대화상대 원함	• 그리움 • 슬픔 • 잊지 못함 • 안타까움	• 그리움 • 잊지 못함 • 슬픔 • 쓸쓸함 • 혼자 중얼거림	• 부인을 회상함 • 그리움 • 잊지 못함 • 슬픔 • 안타까움
부 정 적 감 정 (정서 변화)	• 후회스러움(1.2.3.4) • 자녀문제(1.2.3.4) • 화가 남(1.2.3) • 서운함(1.3.4) • 기막힘(믿기지 않음) (2.3.4) • 원망(1.2),답답함(2.4) • 죽음에 대해 민감함 (2,3) • 역할수행의 어려움(2.4) • 성적갈등(2.4) • 의사결정의 어려움(4) •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 (2) •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 받음(2), • 외로움(1) • 우울함 · 어이없음(2) • 억울함(3), 무서움(3) • 죄책감(3), 아쉬움(3)	• 원망스러움 • 외로움 • 서운함 • 화가 남 • 후회스러움 • 딸의 결혼문제 걱정함	• 후회스러움 • 죽음에 대해 민감함 • 기막힘 (믿기지 않음) • 화가 남 • 성적갈등 • 답답함 • 원망 • 어이없음 • 우울함 •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 •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음 • 자녀교육의 어려움 • 역할수행의 어려움	• 화가 남 • 죽음에 대한 민감함 • 서운함 • 억울함 • 후회스러움 • 무서움 • 죄책감 • 아쉬움 • 자녀의 자립 위한 불안감 • 믿기지 않음	• 서운함 • 후회스러움 • 의사결정의 어려움 • 가슴 답답함 • 믿기지 않음 • 역할수행의 어려움 • 자녀와의 관계 어려움 • 성적갈등

〈표 1〉 사별과정의 범주(계속)

범 주	속 성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사회적 지지와 적응	• 위로와 지지(친지, 지지모임) (1.2.3.4) • 직장에의 복귀(1.2.4) • 자녀들과의 관계개선 (1.2.3) • 혼자 잊으려함(1.2.3) • 재혼에 대한 생각(1.4) • 성적갈등의 해결(2.4) • 타인에 대한 고마움(1) • 호스피스에 감사함(1) • 현실을 인정함(2) • 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2) • 친구들과의 만남 회복(2) • 여가활동 원함(2) • 건강관리에 힘씀(3) • 신앙에 의지(4)	• 혼자 잊으려 함 • 자녀들에게 식성맞춤 • 며느리의 지지, 위로 • 타인에 대한 고마움 • 재혼에 대해 생각함 • 호스피스에 감사함 • 직장에의 복귀	• 잊으려 애씀 • 현실을 인정함 • 직장에의 복귀 • 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 • 친구들과의 만남 회복 • 성적 갈등의 해결 • 자녀와 좋은 관계 원함 • 사별가족 지지모임에서 도움 받음 • 여가활동 원함 • 재혼에 대한 생각 (보류)	• 건강관리에 힘씀 • 친지들의 위로와 지지 • 자녀와의 관계개선 • 잊으려함	• 사별가족 지지모임에서 도움 받음 • 신앙에 의지 • 재혼에 대한 생각 • 직장에의 복귀 • 성적갈등의 해결

이 없음, 초라한 생각이 듬, 무미건조한 생활, 불안정이 나타났고 참여자 2에서는 외모에 무관심해짐이 나타났다.

'회상의 삶'의 범주에서는 그리움·슬픔·잊지 못함이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혼자 중얼거림이 참여자 1·3에서 나타났다. 부인을 회상함은 참여자 1·4에서 나타났으며, 안타까움은 참여자 2·4에서 나타났다. 참여자 1에서 대화상대 원함, 아름다운 추억이, 참여자 3에서는 쓸쓸함이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정서변화)'의 범주에서는 후회스러움(부인의 치료, 잘해주지 못한 일 등)·자녀문제(결손, 교육, 자립)가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화가 남은 참여자 1·2·3에서, 서운함은 참여자 1·3·4에서, 기막힘(믿기지 않음)은 참여자 2·3·4에서 나타났고, 원망은 참여자 1, 2에서, 답답함· 역할수행의 어려움·성적 갈등은 참여자 2·4에서, 죽음에 대해 민감함은 참여자 2·3에서 나타났다. 참여자 1에서는 외로움이 나타났고, 참여자 2에서는 우울함·어이없음·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음이 나타났다. 참여자 3에서는 죄책감·억울함·무서움·아쉬움이 나타났으며, 참여자 4에서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범주에서는 위로와 지지(가족, 친구, 지지모임)가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혼자 잊으려함·자녀와의 관계개선(좋은 관계 유지)이 참여자 1·2·3에서 나타났으며, 직장에의 복귀가 참여자 1·2·4에서 나타났다. 재혼에 대한 생각은 참여자 1·4에서 나타났으며 성적 갈등의 해결은 참여자 2·4에서 나타났다. 참여자 1에서 타인에 대한 고마움·호스피스에 감사함이 나타났고, 참여자 2에서 현실을 인정함·세상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친구들과의 만남 회복·여가 활동을 원함이 나타났고, 참여자 3에서는 건강관리에 힘씀이, 참여자 4에서는 신앙에 의지함이 나타났다.

참여자의 일반적 구조적 기술의 기간별 변화를 보면 〈표 2 참조〉 사별 후 6개월 이내에서는 잠 못 이룸·대인관계 기피·그리움·슬픔·공허감·잊지 못함이 참여자 1·2·3·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믿기지 않음·화가 남·후회스러움·의욕이 없어짐·식욕부진·직장에의 복귀·병이 남·멍함·혼자 중얼거림·외로움·방황함·서운함·답답함·안타까움·원망·죄책감·억울함·무서움·아쉬움·불안정·낙이 없음·체중이 줄어듦·기쁨이 사라짐·외로움 등이 나타났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그리움·잊지 못함·자녀와의 좋은 관계 원함(관계개선)·위로와 지지(가족, 친구, 지지모임)·자녀문제(교육, 결혼, 갈등)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잊으려함·역할수행의 어려움·죽음에 대한 민감함·부인을 회상함·성적 갈등·현실을 인정함·초라한 생각이 듬·무미건조한 생활·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받음·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건강관리에 힘씀·외모에 무관심 등이 나타났다.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그리움·잊지 못함·성적 갈등의 해결·자녀와의 관계개선·타인에 대한 고마움·세상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호스피스에 감사·현실을 인정함·재혼에 대해 생각함 등이 나타났다.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잊지 못함·그리움·재혼에 대한 생각·자녀문제(교육·양육)·친구들과의 만남 회복·여가활동 원함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사별 직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무기력한 삶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증상은 완화되고 직장에 복귀하여 경제적 안정은 이루지만 그리움·슬픔·잊지 못함은 감정의 농도는 엷어지나 계속 경험하는 것으로

〈표 2〉 사별과정의 기간별 변화

기 간	핵 심 속 성
사별 - 6개월	① 잠 못 이룸(1.2.3.4) ② 잊지 못함(1.2.3.4) ③ 대인관계 기피(1.2.3.4) ④ 그리움, 슬픔(1.2.3.4) ⑤ 공허감(아내의 빈자리)(1.2.3.4) ⑥ 의욕이 없어짐 · 후회스러움 · 화가 남 · 식욕부진(1.2.3) ⑦ 믿기지 않음(2.3.4) ⑧ 병이 남 · 서운함(1.3.4) ⑨ 직장복귀(1.2.4) ⑩ 혼자 중얼거림(1.3) ⑪ 멍함 · 방황함(1.4) ⑫ 원망(1.2) ⑬ 답답함 · 안타까움(2.4) ⑭ 불안정 · 낙이 없음 · 기쁨이 사라짐 · 외로움(1) ⑮ 죄책감, 억울함, 무서움, 아쉬움 · 체중이 줄어듬(3)
6개월 - 1년	① 그리움, 잊지 못함(1.2.3.4) ② 자녀와의 관계개선(1.2.3.4) ③ 가족/친구/지지모임 위로와 지지(1.2.3.4) ④ 자녀문제(교육.결혼.갈등)(1.2.3.4) ⑤ 잊으려함(1.2.3) ⑥ 역할수행의 어려움 · 성적 갈등(2.4) ⑦ 죽음에 대해 민감함(2.3) ⑧ 부인을 회상함(1.4) ⑨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음 · 외모에 무관심 · 현실을 인정함(2) ⑩ 초라한 생각이 듬 · 무미건조한 생활 · 대화상대 없음 · 외로움(1) ⑪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 · 외모에 무관심 · 원망(2) ⑫ 건강관리에 힘씀 · 아쉬움 · 후회스러움(3)
1년 - 2년	① 그리움 · 잊지 못함(1.2.4) ② 성적 갈등의 해결(2.4) ③ 자녀와의 관계개선(1.3) ④ 타인에 대한 고마움 · 호스피스에 감사 · 재혼에 대해 생각함(1) ⑤ 현실을 인정함(2) ⑥ 세상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3)
2년 - 3년	① 잊지 못함, 그리움(2.4) ② 재혼에 대한 생각(2.4) ③ 자녀문제(교육, 양육)(2) ④ 여가활동 원함(2) ⑤ 친구들과의 만남 회복(2)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육, 양육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재혼에 대한 생각도 보류)있으며,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동반된다. 성년일지라도 미혼일 경우 결혼이나 자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한 생각은 자녀가 성년일 경우, 대화상대가 없음으로 인한 외로움이 클수록 일찍 나타나며 구체적인 계획은 사별 1년이 지난 후에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생활이 짧아 준비 없이 아내와 사별한 경우 극심한 혼란과 방황 · 슬픔을 경험하고 기막힘 · 억울함 · 어이없음 등의 감정을 보였다.

남성배우자를 사별한 중년여성의 경우 가장 보편적이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은 외로움 · 슬픔 · 역할수행의 어려움 ·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반해, 사별한 중년남성의 경우는 슬픔 · 그리움 · 잊지 못함 · 역할수행의 어려움(특히 가사일)을 경험하였다.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반면 남성은 이 부분에 어려움은 별로 없다. 그러나 사별한 지 2-3년이 지나도 자녀의 교육 · 양육문제, 자녀의 결혼 등의 제반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여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생각은 쉽게 하지만, 실제 재혼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암 환자 아내와 사별한 중년남성에 대한 관심과 추후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양

한 사별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별가족의 사회적 응을 돕고 정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간호중재가 개발되어 호스피스 간호사가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가족을 돕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암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중년남성의 심리적·신체적 고통 등의 경험을 파악하여 경험의 특성에 따른 적응과정에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암으로 아내와 사별한 지 2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재혼하지 않은 35-60세의 중년남성 4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2년 11월에서 2004년 3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를 선정하여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녹취하였으며 참여 관찰한 내용과 전화내용도 기록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1시간 30분~ 2시간 30분 정도였으며 면담횟수는 평균 4회였다.

자료 분석은 소수의 대상자를 장기간 심층 연구하여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 Giorgi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의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단위를 규명하고 중심주제, 중심의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고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중년남성의 경험은 '신체적 증상', '무기력한 삶', '회상의 삶', '부정적 감정(정서변화)', '사회적 지지와 적응' 등 5가지의 범주로 분석되었다.

'신체적 증상'은 식욕부진·피곤함·잠 못 이룸·병이 남·체중이 줄어듬의 5가지 중심의미가 포함되었으며, '무기력한 삶'에서는 공허감(아내의빈자리)·대인관계 기피·의욕이 없어짐·멍함·기쁨이 사라짐·낙이 없음·불안정·초라한 생각이 듬·무미건조한 생활·방황함(허송세월 보냄)·외모에 무관심해짐의 11가지 중심의미가 나타났다. '회상의 삶'에서는 그리움·잊지 못함·슬픔·혼자 지냄(중얼거림)·부인을 회상함·쓸쓸함·안타까움·아름다운 추억·대화상대 원함의 9가지 중심의미가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에서는 후회스러움·자녀문제(교육, 결혼)·화가 남·서운함·기막힘(믿기지 않음)·원망·답답함·죽음에 대해 민감함·역할수행의 어려움·성적 갈등·의사결정의 어려움·다른 사람들의 시선의식·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음·우울함·외로움·억울함·무서움·죄책감·아쉬움·어이없음의 20가지 중심의미가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서는 위로와 지지(친지, 지지모임)·직장에의 복귀·자녀들과의 관계개선·혼자 잊으려 함·타인에 대한 고마움·재혼에 대해 생각함·성적 갈등의 해결·호스피스에 감사함·현실을 인정함·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친구들과의 만남 회복·여가활동 원함·건강관리에 힘씀·신앙에 의지 등 14가지 중심의미를 보였다.

사별과정의 기간별 변화를 보면 사별 직후부터 6개월 사이에 식욕부진·잠 못 이룸·병이 남·체중감소·멍함·외로움·슬픔·잊지 못함·의욕이 없어짐·공허감(아내의 빈자리)·대인관계 기피·기쁨이 사라짐·멍함·후회스러움·직장에의 복귀·화가 남·대화상대 없음·성적 갈등·자녀양육의 어려움·억울함 등의 감정이 나타났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건강관리에 힘씀·자녀문제(교육, 결혼, 갈등)·그리움·잊지 못함·외로움·혼자 잊으려함·위로와 지지(가족, 친구, 지지모임)·자녀와의 관계개선·성적 갈등·현실을 인정함·원망·아쉬움·후회스러움·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음·역할수행의 어려움·부인을 회상함· 무미건조한 생활·외모에 무관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 1년에서 2년 사이에서는 재혼에 대한 생각·외로움·성적 갈등의 해결·세상 보는 눈이 너그러워짐· 타인에 대한 고마움·다른 사람의 시선의식·안타까움·우울함·화가 남·그리움·잊지 못함·호스피스에 감사 등의 경험을 하고, 2년에서 3년 사이에는 자녀문제(교육, 양육)·잊지 못함·재혼에 대한 생각·여가활동 원함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암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중년남성에 대한 관심과 돌봄,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 간호가 주로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추세이므로, 임종 전에 사별가족에 대한 사전교육과 마음가짐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별과정의 기간별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사별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정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지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암으로 아내와 사별한 중년남성에 대한 관심과 추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사별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정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간호중재의 실제적인 안내 및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 인 (1998).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와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 관리학 박사학위논문.

김미혜 (2004). 간호사의 호스피스간호 체험.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분한, 탁영란, 전미영 (1998). 호스피스 간호시 말기 암환자의 임종 현상 연구-독립형 호스피스 센타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6(2), 668-677.
김선영 (1991). 미망인의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남인숙 (2001). 상배여성의 상실위기 극복과 사회적응과정.
노유자 (1994).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배동석 (1991). 사별과정과 유족에 대한 목회상담연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복순 (2002). 사별한 중년여성에 대한 경험 연구. 질적연구, 3(1), 61-68.
이선이 (1995). 가정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2), 69-79
이영휘 (2002).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2(4), 539-549.
이옥자 (1995). 말기 암환자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학위논문.
이정섭 (1992).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이재만 (1990). 사별에 대한 위기상담.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공옥 (1991). 말기 암환자의 임종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필순 (1999). 말기 암환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희정 (1997).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 석사학위논문.
Cooley, M. E. (1992). Bereavement care: A role for nursing. *Cancer Nursing*, 15(2), 125-129.
Gillis, A. J., & Perry, A. (1991).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sin mid-life women. *J Advan Nurs, 16*, 299-310.
Holloway, N. M. (1989). Grieving and dying. In Critical care: care plans. Springhous Co.
Jung, C. G. (1950).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Lee, S. O. (1996). Health promotion in mid-lif. In Seoul National University(Eds), *Health promotion and change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69-76.
Leve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and Mckee, B. (1978). *The Season of men's life*, New York: Knopt.
Lindemann (1944).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 141-14.*
Lopata, H. Z. (1993). The Support Systems of American Urban Widows. In stroebe. M., Stroebe, W., & Hansson, R. O(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ch and intervention (pp.381-3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orkle, Ruth., Robinson, L., Nuamah, I., Lev, E., Benoliel, J. Q. (1998). The Effects of Home Nursing Care for Patients During Terminal Illness on the Bereaved's Psychological Distress. *Nur. Research*, 47(1), 2-10.
Norris, F. H., & Murrell, S. A. (1990).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Stress as Modifiers of Adjustment to Bereavement by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5(3), 429-436.
Parkes, C. M. (1988).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Jour. of social I.
Wolfelt, A. D. (1988). Death and Greif—A Guide for Clergy.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Abstract -

Experiences of Spousal Bereavement in Middle Aged Men

Park, Kyung Bok · Kim, Boon Han**

Death of spouse is the most heartbreaking, stressful and inevitable tragic life event. In middle aged men who belong to the social middle class and accomplished their occupational success, experiences of spousal bereavement are great shock.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y overcome their mental and physical pain and to obtain the basic materials to develop suitable nursing care

*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grams for them.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is study is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aning unit. This method also makes theme, focal meaning, 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and create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 grasped by participator's experience through situated structure description.

This study performed from November 2002 to May 2004, and participators were four men.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hich had been tapped and analysed the Giorgi's method.

Finally, the five focal meaning below have been abstracted.

Theme 1. Physical symptom loss of appetite, fatigue, insomnia, outbreak of illness, weight loss.

Theme 2. life of spiritless lack of desire, sense of emptiness, unstableness, prosaic life, wandering, indifference of appearances, avoidance of meeting people.

Theme 3. life of retrospction reflection for his wife, yearning, grief, muttering to himself, never-to-be forgotten wife, leading a lonely life

Theme 4. negative emotion reproaching, feeling hurt, marriage of daughter, feeling heavy, getting angry, sexual desire, awareness of his sinfulness, loneliness

Theme 5.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getting his wife off his mind, curring favor with children, support and consolation by his daughter-in-law, appreciation for hospice nurse, considering remarriage, taking care of himself, good relation with his childre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middle aged men bereaved of their wife by cancer need other's concern. And we have to study further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 Until now hospice nursing is concentrated on cancer patients. But from now we have to provide their families suitable nursing care programs to adjust themselves to social life before and after death of patients.

Key words : Middle-aged man, Spousal bereavement